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또래상담사들의 맹활약

※ 이 사례는 최혜지 경기 석호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상담교사가 노력한다한들, 때로는 열 명의 선생님보다 한 명의 친한 친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떼는 것이니까요. 고맙게도 우리 학교에선 또래상담사 아이들이 그 역할을 제법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친구의 심리검사를 직접!

서류평가와 면접까지 나름의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 또래상담사들은 기본교육 8시간 외에도 다양한 보수교육, 심화교육을 받습니다. 지난 1학기 우리학교 또래상담사들은 MBTI 성격검사와 스트레스지수 검사, 행복지수 검사 등 간이심리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심리검사가 어떤 목적에서 이뤄지고, 또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해 훈련을 받은 이후 직접 임상심리사가 되어 친구들의 검사를 도와주고, 그 결과를 해석해 주었지요.

간이검사여서 문항이 매우 간단하고, 아이들 역시 아무리 훈련을 받더라도 전문가 수준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또래상담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향후 전개되는 상담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큰 동기를 얻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친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큰 소득은 또래상담사 아이들에게 학급 테두리를 넘어선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래상담사로 선발됐다고 해서 모두가 사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다른 반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아이들은 점차 '또래상담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성장은 전문상담교사인 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래상담사가 닿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위기 학생을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레이더'도 훨씬 넓어지는 셈이니까요.

친구와 친구를 이어주는 또래상담사

한편 또래상담사들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래 눈높이에 맞는 재기발랄한 캠페인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지요. 이번 2학기 생명존중주간에는 점심시간마다 이벤트존을 운영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더욱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래상담사들이 직접 기획한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것은 인스타그램 모양의 판넬과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활용한 '포토존' 이벤트였습니다. 포토존을 방문한 학생들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등 해시태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해시태그를 골라 인스타그램 판넬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내고 싶은 친구를 말하면 또래상담사들이 즉석에서 인화된 폴라로이드 사진을 간식과 함께 해당 친구에게 배달해주는 것이지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진 선물로 친구간의 교우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며 또래상담사 아이들도 무척이나 뿌듯해했습니다.

이렇듯 또래상담사들이 제 역할을 해 줄수록 상담교사인 제 어깨도 무거워집니다. Wee클래스가 맡고 있는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위기학생 관리와 같은 상담실 본연의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래상담사들이 든든히 활약하는 만큼 저 역시 더 힘을 내야겠지요?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군자중 교사동아리 ‘역량기반수업연구회’

“교사의 역량이 곧 학생의 역량”



역량 기반 평가를 위한 수업 디자인을 논의 중인 교사들. 군자중 제공

서울 군자중은 2017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가 됐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을 고민한다. 이 연구의 중심에는 교사동아리 ‘역량기반수업연구회’가 있다. 이 동아리의 활동 목표는 교사의 교과 역량을 키워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 이 교사동아리를 이끄는 이정은 군자중 도덕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자발적으로 공부·연구하는 교사들

‘역량기반수업연구회’는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다. 일방적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직무 연수에 한계를 느낀 교사들이 ‘동료 교사와 수업을 나누면서 내 수업의 개선점을 찾아 발전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

10명의 연구교사들은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매 달 과제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일상에서 접한 다양한 콘텐츠와 한 권의 책에서 각각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느낀 부분을 정리해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단순히 감상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시킬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이 교사는 최근 모임에서 각자의 수업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수업보기’를 제안했다. 교사로서 좋은 수업과 그렇지 못한 수업을 가려내는 눈을 길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활동의 가장 의미 있는 결과로는 단연 성장하는 교사들의 모습이다. 특히 연차가 적은 저경력 교사일수록 마치 스펀지같이 연구 활동의 이점을 흡수한다. 이 교사는 “수업에서의 긍정적 변화도 크지만, 모임 때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면서 “동료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기쁨”이라고 전했다.

결과물은 적극 공유… 다른 학교 동아리와 교류도

역량기반수업연구회는 ‘수업태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수업태그’라는 이름의 웹진을 발행하기 때문. 웹진은 △수업철학에 대한 교사들의 토론 내용 △역량중심수업 연구결과 △수업개선기 등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로, 형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도 공개된다.

이 교사는 “교육적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 좋은 결과물이란 생각이 들어 웹진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유형의 결과물을 만들면서 서로 더욱 활동 의지를 다잡게 된다”고 말했다.

수업 나눔과 연구 결과 공유는 학교라는 테두리도 넘어선다. 다가올 11월, 경기 시흥교육지원청의 수업연구보고회에 참여해 다른 동아리와 교류를 나누기로 한 것. 이 교사는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라면 다른 교사동아리와의 적극 교류할 생각”이라면서 “교사동아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노력하는 옆의 동료 교사를 보며 자극 받고, 퇴보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